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7년 12월 8일
제 안 자 : 이종률 의원외 12인

1. 주 문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쇄부도와 금융, 외환의 위기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별지 결의문과 같이 결의한다.

2. 제안경위

동 결의안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에 지방에서부터 밀거름이 되어 근검과 절약으로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하고자 1997년 12월 8일 이종률 의원을 비롯한 1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임.

3. 제안이유

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국난은 정부와 지도층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과소비와 허영이 가득찼던 국민 계층에게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나. 또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과 항락산업, 호화사치, 과소비가 아직도 만연되고 있어, 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임.

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오늘의 우리 경제가 그 어
느때보다 어려운 시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제난 극복과
나라살리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안)

우리 이천시의회는 오늘의 우리 경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의 총체적인 국난이 정부와 지도층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와 허영에 찬 생활을 해왔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겸허히 통감하며, 의원 모두가 새로운 각성과 근검 절약하는 마음가짐으로 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소 생활속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I. 우리는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적극 자제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우리 경제가 안정될때까지 억제한다.
- I. 우리는 에너지 절약의 솔선 실천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과 절전·절수운동에 앞장선다.
- I. 우리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국산품 애용에 앞장선다.
- I. 우리는 연말연시에 따른 소비·향락성 분위기를 단호히 배척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각종 의례 모임의 간소화 운동을 확장하는데 앞장선다.

1997. 12. 11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동